



## ‘이심전심’ 해외연수 가보자

學問如逆水行舟는 不進則退라.

학문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말이 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서울조합 1층 홍보실로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Business English를 배우기 위해 모여든 영어동아리반. 서울시의 추진사업으로 서울인쇄센터에서 태동된 이 영어반은 센터의 지원이 끊어진지 일년이 넘었으나 지금까지 회원들의 자비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2년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관광을 겸한 해외 연수를 가게 된 것이다. 여행지는 경비가 부족한 관계로 영어권이 아닌 동남아시아로 택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지의

문명을 접하면서 세계의 문화유적을 탐사해 보고자하는 것이 모두의 뜻이었다.

우리는 옛 이름이 사이공으로 기억되는 호치민시로 향했다. ‘베트남의 패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곳곳에 배어있어 우리 여행단의 감회가 남달랐다. 한반도의 1.5배나 되는 베트남은 자국어와 영어, 불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호치민은 19C중반 점령국이었던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도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식민지풍의 건물과 교회 등이 세워져 있고 로터리에서 방사형으로 뻗은 거리는 아름다운 가로수로 가득 차 있었다.

호치민시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모두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인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걸어 다니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수많은 오



## 서울인쇄조합 영어동아리반 해외연수를 마치고

# 캄보디아에 사랑을 심다

토파이의 행렬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전쟁영화에서 진지를 공격하는 엄청난 무리의 공습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자전거를 개조하여 만든 씨클로(Cyclo)를 타고 시내 공원을 산책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사뭇 여유로움과 낭만이 느껴지기도 한다.

### 전쟁상처 곳곳 ... 도심엔 자전거 행렬

우리는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메콩 델타지역인 미토로 이동했다. 이곳은 내륙 해상운송이 잘 발달되어 델타지역의 쌀을 호치민 시를 비롯하여 식량이 부족한 베트남 중부지역으로 직접 수송하고 있었다. 월남전 당시에는 땅과 수로가 잘 분간되지 않는 이 메콩 델타의 지역적 특성 때문

에 미군의 희생이 가장 크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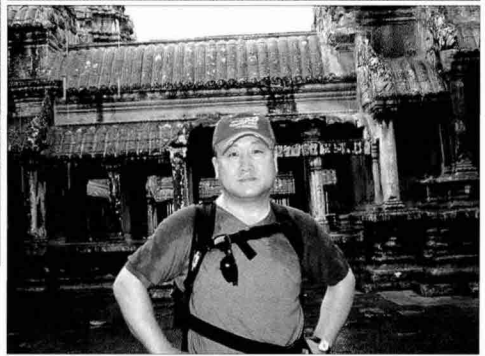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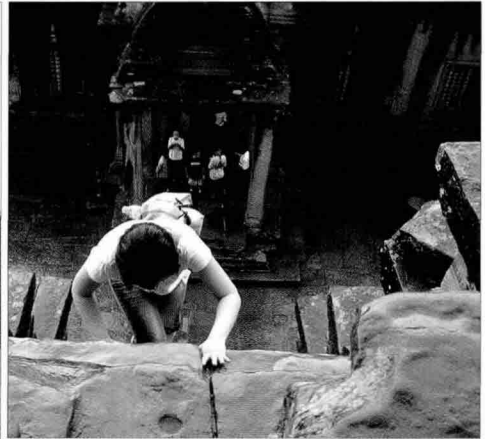
카누와 비슷하게 생긴 쪽배를 타고 열대 우림지역의 밀림을 탐험하다보니 마치 우리가 월남전의 수색대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며 잔잔한 흥분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파김치가 된 우리일행은 시원한 코코넛열매의 과즙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난 David부부는 벌써 시내산책을 끝낸 모양이다. Jolie와 Michael과 John도 물밀 듯이 몰려드는 오토바이의 장관을 만끽하기 위해 이른 아침 호치민의 심장부를 거닐었다. 항상 늦게 나타나는 Cara와 Jennifer가 모이자 우리는 다시 구찌로 이동했다.

호치민에서 약 70km떨어진 구찌는 월남전 당시 해방 전선의 거점으로 철의 삼각지대로 불릴 만큼 무너뜨리기가



양코르와트 사원모습과 필자인 김남수 청아문화사 사장  
옆면. 톤레삽 호수주변에 사는 빈민들을 위해 즉석에서 모금을 하여 두곳에 펌프를 설치했다.



어려운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하 터널은 20여년 동안 모두 손으로 뚫으며 깊이가 300m, 총거리가 250km에 달한다고 하니 미군들의 이곳 점령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갔다. 구썬는 엄청난 양의 고엽제가 뿌려진 격전지로서 베트남이 전승의 전적물로 자랑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 일부의 터널을 직접 체험해본 일행들은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됐고 지하 사령부와 부비트랩, 각종 무기들을 보면서 전쟁의 치열함과 잔혹함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다.

디어 헌터등 여러 월남전 영화에서 봐왔던 정글속 자연무기들은 그네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리라.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캄보디아로 향할 수 있었다.

## 캄보디아 양코르와트로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씨엠립. 공항에는 먼저 와 있던 Don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Mr. Wiriack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공항을 통과한 우리들은 북한산 들

쭉술로 해후를 즐기며 캄보디아 최고의 가이드 영철씨를 만날 수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은 비가 내렸다. 우기인 이곳은 아열대 기후와 열대몬순 기후의 혼합으로 산악기후와 적도 기후등 다양한 날씨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양코르 유적탐방에 나선 우리는 양코르톰 남문과 피메아나카스 사원을 둘러보았다.

특히 왕의 연설을 듣거나 행사를 하는데 쓰였던 코끼리 테라스와 양코르왕국의 전성기 때인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서 세워진 바이온 사원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었다. 바이온 사원에는 51개의 탑이 솟아있었으며 그 51개 탑부 모두에는 관음보살의 얼굴이자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 그 미소만큼이나 신비하고 웅장하게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국식 수끼로 점심을 해결한 우리는 이번 여행의 백미인 양코르와트 사원으로 향했다.

양코르와트. 양코르톰에서 약 1.5km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사원은 12세기 중반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양코르는 왕도(王都)를 뜻하고 와트는 사원을 이르는 말이다.

이 유적은 양코르왕조의 전성기(9세기초~15세기초)를 이룬 수리아바르만 2세가 주신(主神)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

일하기 위하여 건립한 바라문교 사원이다. 천년에 가까운 유적의 신비속을 걷는 우리는 시바왕의 주술에 걸린 듯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앙코르 고대 왕국 속에 와있는 느낌이 었다.

앙코르 왕조는 13세기 말부터 쇠망하기 시작하여 15세기 경에는 완전히 멸망함에 따라 정글속에 묻혀 버렸다. 지금은 너무 많이 붕괴되어 복구가 어려운 상태로, 한동안 출입이 금지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석조건물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물인 앙코르와트를 뒤로하고 우리일행은 훗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크메르인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톤레삽 호수(Tonle Sap Lake)로 향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리적인 경이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톤레삽은 길이가 160km, 너비가 36km로 동양 최대의 호수로 꼽히고 있다. 배를 타고 있자니 수평선이 보이는 이곳이 마치 바다로 느껴짐은 무릇 나 뿐만은 아니리라 생각되었다.

## 우물 하나면 160명 식수 해결

수상촌을 지나면서 우리는 호수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다. 흙탕물 속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 배를 저어가며 수상학교에 가는 아이들, 중국계 상인들, 보트 피플이라는 베트남계 빈민들, 배에 물건을 싣고 시장에 가는 노인들, 특히 생계를 위해 예닐곱 살의

아이들을 시켜 양동이를 타고 우리 배에 접근하여 구걸을 시키는 그네들의 부모를 보았을 때 이들의 어쩔 수 없는 빈곤한 삶을 우리일행은 모두 안타까워했다.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호수와는 극히 대조되는 그들의 궁핍한 생활을 둘러 본 우리 일행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남기고 떠나자는 의견에 모두 찬성하였다. 호수 주변에 사는 빈민들이 150만명이 넘는다고 하며 우물 하나를 파면 약

160명의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할 수가 있다는 영철씨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즉석에서 모금을 하여 두 곳에 펌프를 설치해 주기로 결정했다. 많지 않은 회비로 운영해 온 우리 영어반이었지만 추가 모금까지 하여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에 우리의 우정을 심어 주기로 한 것이다. 추후 귀국을 해서 들은 소식이지만 그곳 주민들이 감사의 뜻과 함께 그 옆 마을에서도 서로 요청을 해와 우리들의 결정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계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진흙탕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황혼이 지는 톤레삽의 아름다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이번 여행의 중지부를 찍었다.

끝으로 3년동안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함께 한 우리 English Classmates를 소개하고 싶다. Daniel(김상호 사장), David(박건춘 사장), Christine(최호경 사장), John(이신열 사장), Jolie(오은주 실장), Jennifer(황정혜 사장), Michale(김윤중 사장), Don(도경수 사장), Cara(오혜경 과장)

김남수 · 청이문화사 대표

